

기고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변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사는 것을 평생교육(平生教育)이라 하는데, 주변 환경에는 인적환경으로 지식 정보 기능을 먼저 터득한 사람 인 부모와 스승이 있고, 물적 환경은 교육 자료와 시설이 있다.

교육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기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배우고 터득하고, 안 것을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물적 환경자료를 배분해서 교육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데 이것을 교육삼락(教育三樂)이라 한다.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반복하며 인류문화는 교육 삼락에 의해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는 교육에 의해 배워 터득

교육 삼락으로 평생교육을 하자

한 지식 정보기능과 기술을 정년퇴임 후 인생 이모작으로 들어가면서 배우는 즐거움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아까운 인재들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관이 생겼고 거기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배우는 즐거움에 사는 노인이 많으나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어 우수인력자들이 교육 삼락에 동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노령인구의 교육프로그램, 노령인구의 능력보유자가 서로 가르치는 프로그램, 자기가 보유한 교육시설 자료를 배우는 즐거움의 틀을 만들어 운영해 교육 삼락이 탄력을 받아서 운영되었으면 한다.

인류문화 교육삼락으로 발전

미래국가 발전은 교육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노인인구가 교육 삼락을 할 수 있게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국에는 퇴직한 교직자들이 모여 교육 삼락의 활동을 하던 교육삼락회가 전국 각 시·도에 있는데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무관심 지도로 밀려 존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교육삼락회를 부활해야 한

다는 교육 원로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퇴직한 교사들의 재능 기부 기관으로서 교육 관변단체로 교육 삼락회 부서를 만들고 이를 평생교육부에서 교육 예산을 받아 운영하게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갈팡질팡하는 문교정책과 공교육의 부실한 운영으로 공교육을 불신한 학부모가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사교육인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사회 각 분야의 퇴직한 재능 보유자들이 재능기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삼락 교육학원을 만들어 운영하면, 인생 이모작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부모 교육비가 절감되는 일거양득의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해마다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고 있는데 교육 삼락 학원을 유류 교육시설을 이용해 만들고 지역에 있는 각 분야의 퇴직자 재능기부 활동으로 교육을 하게 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보다는 교육경력을 가진 퇴직 교육자가 밀도 높은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 삼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직관리 운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

육 특구인 광주 남구정이 퇴직한 교육자로 구성된 내리사랑 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재능기부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교육 삼락이 활성화 되게 했으면 한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필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가르치는 활동이면 그 지식과 기능이 내 것으로 정착되지만, 가르치는 활동이 없으면 쉽게 잊힌다. 그러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기법을 배웠다면 다시 누구에게 가르치는 교육 삼락 활동을 해야 내 것으로 정착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부모의 소리에 경청해 조기교육으로 영어와 한자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에 사는 교사가 대가성의 보수를 떠나 희생과 봉사의 스승이 되게 해야 하며, 이익 추구의 노조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조가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으므로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삼락의 정책을 펴야 하고, 국민은 교육 삼락의 복지혜택으로 평생교육을 하면서 교육 선진국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설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경찰관들

치안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니 놀랍다. 치안의 보루인 일선 경찰관들이 이처럼 위협을 느껴서야 어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광주에서는 총 631건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720명을 붙잡아 99명을 구속하고 6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 숫자가 가히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특히 해마다 공무집행 사례가 100~20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15년 242건이 발생해 49명을 구속하고 234명 불구속한 데 이어 2016년엔 222건이 발생

했으며 지난해에도 167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말 현재 53건이 발생하는 등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찰관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속성 탓에 매일매일 이같은 폭력 행위 등에 노출돼 있다. 특히 주취자들의 폭행이 상당수를 차지해 공무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등 관련 법을 강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남아가는 전남 인프라투자 서둘러야

전남지역의 교통·정주·생활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모든 시설물에서 노후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민들의 소득 및 투자가 절실한 실정인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전남도 '인프라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세미나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이해, 인프라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랍다. 시설물 안전 특별법상 전남지역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 비중이 10~20년세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은 20년 후 74.9%로, 항만은 20년 후 62.6%까지 증가한다니 충격적이다.

특히 댐은 현재 23.1%에서 20년 후 84.6%까지 치솟을 것이라니 불안감이 앞선다. 또 전남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포장률이 76.5%로 전국 평균 85.3%에 비해 크게 낮고 전국에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도민들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증진과 일자리 창출'은 담보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 인프라 사업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뚜렷한 만큼, 인프라 사업들을 미룰 일이 아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유머@세상

◇가장 비싼 이유 어떤 부자가 있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진단을 끝낸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자 애처가인 남편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 돈 걱정은 말고 제일 좋은 뇌로 이식해 주십시오!" "대학 교수의 뇌가 하나 있긴 한데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과학자의 뇌는 1,500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정치가의 뇌는 2,0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건 왜 그렇게 비싸죠?" "그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나 마찬가지라서요!" ◇구조 어느 날 수녀와 정치인이 강물에 빠졌다. 구조대가 달려와서는 정치인부터 구조하자 구경꾼이 물었다. "어째서 정치인부터 구하는 거죠?" 그러자 119 구조대원은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도 모르시요? 정치인을 오래 놔두면 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이요"

Table with two columns: 생활정보전화 (Life Information Phone) and 긴급전화 (Emergency Phone),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numbers.

하늘, 때, 사람으로 승리하는 스윙을 하라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1 -2 제갈량의 골프경연

삼국연의소설 적벽대전에서 최대공신으로 그려지지만 군사적으로는 뛰어나지 않고 정치가로서는 출중한 제갈량은 위기에 빛나는 리더십이다. 천하삼분지계를 통해 천하를 삼분으로 나눈 웅대한 전략을 펼친 제갈량은 삼국중 가장 강력한 촉의 재상으로 죽기 전까지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지략의 리더십을 보인다.

제갈량의 전술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기본은 보이지 않는다. 재상으로서 평가는 있으나 군을 움직이는 군사로서의 업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임기응변의 전략가가 가지고 있는 제갈량은 계략가, 전략가로는 미흡하였지만 외교가, 정치가, 촉의 전략가로서 탁월한 가르침을 준다.

골퍼로서 코스매니지먼트는 정확한 방법으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다. 현장 리

더십은 정확한 일을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정확한 방법으로 코스를 공략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방향을 선택하여 정확한 스윙을 해야 한다.

제갈량의 촉의 전략가로서 인간을 보는 바탕은 사람은 선하다는 성철선을 중심으로 통솔력을 발휘한다.

라운드의 비기너는 착하다. 착한 골퍼를 다스리는 방법은 신상필벌과 공평무사한 원칙으로 스윙한다. 고수인 하수이던 동일한 물안에서 적용한다.

많은 인재를 등용했던 제갈량은 패어 웨이를 공략하는 큰 임무는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 경계하고 미리 대비함이다. 무릇 라운드의 공략은 유리한 태세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때를 기다려 동반자들의 힘에 의지하여 지혜를 사용하는 리더이다. 라운드의 위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권능의 골퍼로서 재목을 밝힌다. 덕과 예를 갖추고 동반자들의 배고픔을 같이 하는 인장의 골퍼, 왕성한 책임감을 갖고 리더로서의 의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임기응변의 전략가가 가지고 있는 제갈량은 계략가, 전략가로는 미흡하였지만 외교가, 정치가, 촉의 전략가로서 탁월한 가르침을 준다. 골퍼로서 코스매니지먼트는 정확한 방법으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다. 현장 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장골퍼, 걸음걸이가 빠르고 투지로 가득 차 있는 보장, 공략할 때는 앞장서고, 배려할 때는 뒤따라 끼리끼리 맡는 기장, 동반자를 능가하고 고수물 만나도 질리지 않고 상대방이 강할수록 투지를 불태우는 맹장, 어떤 상대방을 보면 정중하고 공대한다. 가까이 충언에 귀를 기울이며, 밖으로 너그로우면서도 안으로 강직하다. 용감하고 계략도 풍부한 리더의 필요조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대장이다. 무릇 리더의 그릇은 크고 작음이 갖지

않기에 교만함을 조심하고 예를 잃으면 동반자들은 멀리 떠난다. 이는 익히고 단련함이다. 제갈량은 동반자들을 움직이고 심복하도록 만드는 인색하지 않는 작음에서 시작하여 슈퍼리더로서 천기를 읽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라운드를 이끌 어간다.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를 간파하는 것이다. 술과 수는 융합되어야 발출된다.

제갈량은 무릇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것은 억리이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이기는 것은 순리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것은 기이다. 유능한 리더는 기를 이용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기는 변화로서 사건이 변화하는 시기인 사기, 전세가 변화하는 시기인 세기, 동반자들의 사기가 변화하는 시기인 정기이다. 사기가 유리하게 열리고 있는 데도 그것을 살피지 못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기가 유리하게 열리고 있는데도 이에 탐할 수 없음을 어질고 총명한 자라고 할 수 없으며 정기가 유리하게 열리고 있는데도 꾸물거리고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훌륭한 리더는 반드시 사를 틈타서 승리를 거둔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독자투고

'불법 주정차' 성숙한 시민의식 아쉽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수가 1세 대 당 2대씩의 자동차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주차문제 제로 우리는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들은 다른 통행하는 차들이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특히 갓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는 등 안전사고 각지를 만든다. 그로 인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든 보행자나 오토바이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규성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경사

이렇듯 '잠깐이니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운전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차량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시민들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자광장

젊은 고혈압 환자 건강관리 철저

젊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편견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30~50대 성인 약 40%가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을 진단받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20%에 달했다. 젊은 나이에 고혈압은 그만큼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미국심장협회 자료에 의하면 45세 미만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3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고혈압에 걸렸을 때 사망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30~50대 젊은 고혈압 환자는 노화보다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한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때문에 짠 음식이나 튀김, 기름기 많은 육류를 적게 먹고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

류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혈압약을 처방받는 것은 아니다.

30~40대 젊은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이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이라도 3개월간 체중관리나 식이요법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행하도록 한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1차적으로 처방한 약한 약이 듣지 않는다면 혈압약을 처방한다.

이때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 젊은 나이에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안일하게 방치하기 쉽다. 부작용이나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혈압은 뇌나 심혈관계 문제의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조기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젊은 고혈압 환자도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고,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문 화순 119안전센터 소방장